

송이송이 연꽃 피워올려

정토사 여름불교학교 성황... 140명 동참

108사찰순례

월봉사, 봉하마을로

울산 월봉사(주지 오십)는 8월 25일 108사찰순례를 맞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봉하마을로 떠났다.

오전 6시 월봉사에서 집결,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과 노 전 대통령 생가 등을 둘러보고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을 참배하는 코스로.

한편, 봉하마을에는 지난 5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에서 수천만명에 이르는 추모인파가 마을을 다녀갔고, 유결안장식이 끝난 지금도 추모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052)251-4602

박지원 기자

화방복지원 협약 남해병원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대표이사 이암)과 의료법인 남해병원(병원장 장명세)이 남해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낙후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사)화방복지원은 7월 23일 화방동산에서 남해병원과 협약을 맺고, 복지원 입소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과 정기검진 등 지역 내 어르신들의 지킴이가 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은 복지원 내 입소 어르신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 측에서 신속 대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해병원은 복지원과 5분 거리에 있어 빠르게 응급처치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 주 1회 정기검진을 실시해, 입소 어르신 뿐만 아니라 복지원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 어르신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방복지원 대표이사 이암 스님(화방사 주지), 윤문사 주지 성진스님, 장명세 남해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 '연꽃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올해로 46회째를 맞았다.

8월 8-10일 2박3일간 정토사와 운문사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여름 불교학교에는 울산지역 유치원생 및 초·중학생 140여 명이 참가해 어느 해보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처님 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이란 주제로 참선, 명상, 독경, 예불, 설법, 팔정도, 오계 수계식, 정근, 참배, 물놀이 등 즐거운 놀이를 통한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첫째날인 8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감각스런 환경변화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 레크리에이션, 우리집 지도 만들기 반별 수업, 주지 덕진 스님의 법문, 공원묘지 공포체험 등이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아침예불과 운력, 불교 요리수업, 주지 덕진 스님의 법문, 108배 및 수계식, 캠프 이어 등 사찰의 하루를 체험했다.

마지막 날에는 청도 운문사를 참배하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3일간의 여름불교학교를 회향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는 46회째를 맞은 만큼 어린이포교에 남다른 노

하우를 갖고 있다. 공양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학년에게만 발우공양을 지도하고, 저학년과 유치원생은 식판을 사용해 가정과 다름없는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 줘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게 배려했다.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한자리에 모여 자칫 어수선한 분위기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숙련된 어린이보호 지도교사 20여 명을 담임교사로 배치해 안전과 교육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생소한 불교교리 공부와 수행활동 사이에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 묘지에서의 공포체험 등 이색프로그램을 삽입해 흥미를 유발했다. 평소 법회와 기도의 공간이던 설법전과 삼천불전에서 취침하는 등 사찰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한편 정토사에서는 연꽃어린이 토요일법회를 운영 중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정토사 '연꽃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진지하게 참선에 들어갔다.

'영양·정성 듬뿍'

삼계탕 공양

여름철 더위에 약한 어르신들의 보양을 위해 불교계 복지관들이 영양만점 삼계탕을 끓였다.

(사)불국도(이사장 혜총) 옹호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3일 말복을 '삼계탕데이'로 정하고, 삼계탕 300인분을 어르신들께 손수 대접했다. 이날 점심시간에 옹호동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국가를 사신행위를 통해 벗어 던져 고사 하는 사진가로서 고민의 여정을 만날 수 있다.

이에 앞선 8월 7일 (사) 화방마을(대표이사 지현) 두 송복지관도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BS부산은행 대대2동지점 후원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준비하고, 배식에 직원들이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박지원 기자

흑백 필름에 담긴 범어사와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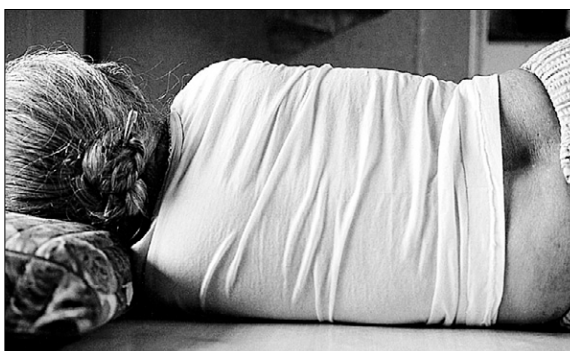
고은사진미술관, 10월말까지 '이상일'展... 오온시리즈 전시

사진작가 이상일씨가 번잡한 세상의 풍경 대신 범어사의 새벽, 깨어나는 만물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부산 고은사진미술관(관장 이재규)은 8월 14일~10월 31일 기획초대전으로 '이상일'展을 선보인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돌아보는 '오므니', 고향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지난 유년의 기억과 대면하는 '기억의 거울-고향사람들', 새벽시간 범어사를 담으며 존재와 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오온'시리즈를 전시한다.

특히 '오온'시리즈는 근래 보기 드물게 최대 100x200cm 규모의 흑백 은염 프린트(gelatin silver-print)로 제작돼 단순한 인화방식을 넘어 작가의 물음에 관객이 보다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든 장지로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이상일 작 '오므니2'.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복도 많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힘든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여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리로 제작해 풀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 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와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품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날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른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이유 있다. 고급게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깝다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재석전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응궁에도 있고 여의륜관 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

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에 의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복으로 풀이유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